

2026학년도 3모 대비 부산사나이 독서 하프모 문제지

국어 영역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매 선택과목마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이세상 아름다운 그대가 영원히 빛나기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 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2학년도 7월 교육청 독서론 - 1 page

엘트리 경제 가나 지문 - 2,3 page

08꽃수 생명과학 단지문 - 4,5 page

미카리 철학 단지문 - 5,6 page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책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평가받는다.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독서에서는 실용이 중시되었으며 정조에게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옛날을 바탕 삼아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며 역사서에 경전 벼금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실용에 무익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고 여겨 평생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과 누워서 편히 보도록 설계된 책상을 금하였다.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조는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사법(死法)으로 규정하여 멀리하였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성인의 뜻을 잘 해아리되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변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얹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자세라 보았다.

정조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으며,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大要)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을 혼자서 읽으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조는 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자기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어 나갔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 ②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 ③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고 읽는 것이 좋다.
- ④ 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파악해야 한다.
- ⑤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④, 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논어」 한 권을 읽었는데, ④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닦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⑥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었다.” 하고는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 홍길주, 「수여방필」 -

- ① 경전을 ‘자기 말처럼 다 외웠다는 점에서 ④는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④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⑥는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였다’는 점에서 ⑥는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논어’ 중에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⑥는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조의 독서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게 해 주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 ①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고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가격과 달리, 가치란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되는 객관적 본질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의 입장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를 ①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자체의 유용성을 의미하는 사용 가치와 상품간 교환 시 발생하는 수량적 비율인 교환 가치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의 이론이 전개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교환 가치를 지불하고 이를 구매하는 존재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교환 가치, 즉 임금을 상회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동을 강제한다. 이때 자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새로 창출한 가치에서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잉여가치였다. 결국 자본가는 잉여 가치 즉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②영위하는 주체로 규정된다.

생산수단을 독자적으로 소유한 사람들 즉 자본가의 성장과 함께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보급되었고 시장 내 자본가 간의 가격 경쟁과 이권 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자본가들은 이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여 생존하기 위해 노동자보다 장시간 저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와 같은 불변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조정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과정에서, 가변자본의 증가율에 비해 불변자본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 속 이윤의 유일한 원천인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함에 따라 이 둘을 합친 총자본 대비 잉여가치의 비율인 이윤율은 ③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는 결국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모순이 자본주의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 철폐되고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나)

마르크스가 예견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는 당시 여러 국가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각국은 마르크스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노동권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그의 이론을 ④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케인즈 또한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자본주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케인즈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주장은 가치의 원천에 대한 잘못

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케인즈는 가치란 상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이 아니라, 가변적인 효용과 희소성,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만약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원천이라면, 막대한 노동이 투입된 상품은 그에 비례하는 높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동이 투입된 상품일지라도 시장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케인즈는 가치가 생산 과정이 아닌 시장의 수요와 소비자의 만족도에 의해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마르크스를 ⑤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케인즈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모순에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찾으려 한 마르크스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케인즈에게 있어 경제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공급이 아닌 유효수요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더라도 이를 구매할 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상품은 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불변자본 확대에 따른 이윤율 하락이 아닌 수요 저하에 따른 소비의 침체로 진단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를 예견하는 대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키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적 경제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재적 모순을 치유하고 공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결국 케인즈는 마르크스에 대항해 체제의 수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증명해 낸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마르크스는 불변자본의 증가와 잉여가치의 감소로 인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의 케인스는 정부 주도의 공급 창출을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마르크스는 (나)의 케인스와 달리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제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마르크스와 (나)의 케인스는 모두 상품의 가격보다는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에 집중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 ⑤ (가)의 마르크스와 (나)의 케인스는 모두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마르크스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한계의 원인이 기술 발전과 시장 내 자본가 간의 이권 다툼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잉여가치에서 총투자금을 제외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마르크스는 가변자본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율의 하락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 ④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노동자라는 가변자본에 집중해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가)에 따라 노동가치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노동으로도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총가치량은 증가하겠군.
- ②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교환가치에 비하여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사용가치가 더 크겠군.
- ③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상품들의 총가치량은 감소할 수도 있겠군.
- ④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가변자본의 증가율이 불변자본의 증가율에 비해 높을 경우에도 자본주의 사회는 봉괴하겠군.
- ⑤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기술이 고도화되어 자동화 기계가 가치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상품에 가치 대비 생산가격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겠군.

7. (나)의 케인즈의 입장에서 (가)의 마르크스의 의견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르크스는 상품의 유용성이 노동시간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론을 전개하였군.
- ② 마르크스는 사회 내적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급진적 혁명을 통해 자본가의 잉여가치를 줄이는 방안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군.
- ③ 마르크스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군.
- ④ 마르크스가 제시한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군.
- ⑤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 체제의 수정 없이 해결될 수 있겠군.

8. <보기>는 마르크스와 (나)의 케인즈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이다.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마르크스: 자본은 오직 살아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력을 얻는 흡혈귀와 같으며, 더 많은 노동을 뺏아들일수록 그 생명력은 강해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가들이 이윤을 쥐어짜기 위해 도입한 기계라는 사철(死鐵)은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을 밀어내고 스스로의 이윤율을 높아먹는 칼날이 된다.

케인즈: 선생님의 발언에는 (㉠)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 ① 상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상품의 가치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계 도입으로 인한 생산 증가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노동으로 인한 생산이 가치를 창출할지는 모르나, 그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상황적 요인에서 찾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9.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배출
- ② ⑤: 포기
- ③ ④: 경향적으로
- ④ ④: 관조적으로
- ⑤ ③: 에둘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 내에서 유전 정보가 실제 형질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DNA가 RNA로 전사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정 시점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모든 RNA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는 유전자 발현 분석은 질병 진단과 생명 현상 규명의 핵심적 수단이다. 과거 유전자 발현 정도는 DNAマイ크로어레이 기술로 측정되었다. 이는 기관에 고정된 유전자 조각인 ‘탐침’과 시료 내 RNA의 상보적 결합을 이용한다. 결합 시 발생하는 형광 신호의 세기를 통해 발현량을 추정하지만, 이는 이미 알려진 서열 정보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점과 신호의 포화로 인해 정밀한 수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RNA 시퀀싱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시료 내 RNA 서열을 직접 해독한다. RNA를 무작위로 파쇄하여 얻은 서열 조각인 리드를 생성하고, 이를 표준 유전체 지도에 대조하여 위치를 찾는 매핑 과정을 거친다. 특정 유전자 영역에 할당된 리드의 개수를 합산하여 발현량을 산출하는데, ⑦에는 개수라는 정수 값을 사용하므로 정량적 분석 범위가 넓고 새로운 서열의 발견이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리드 개수를 발현량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왜곡을 일으키는 변수를 보정해야 한다. 첫째, 유전자 길이와 시료별 총 리드 수에 따른 왜곡이다. 동일한 양이 발현되어도 유전자의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리드가 생성되며, 실험마다 기계가 읽어낸 전체 리드의 총량이 다르면 개별 유전자의 리드 개수도 그에 비례하여 변동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의 리드 수를 유전자 길이와 전체 리드 수로 각각 나누어 산출하는 보정 단위인 RPKM이 사용된다.

둘째는 매핑의 모호성에 따른 변수이다. 유전체 내에는 서열이 매우 유사한 구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특정 리드의 서열이 유전자 A와 유전자 B 모두와 일치할 경우, 이 리드를 어느 한쪽에만 할당하면 실제 발현량이 왜곡된다. 이를 ‘다중 매핑 리드’라 하며, 분석 시 이를 배제하거나 각 유전자의 고유한 리드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셋째, 서열 편향성 문제가 있다. RNA를 파쇄하고 증폭하는 과정에서 염기서열 중 구아닌(G)과 사이토신(C)의 함량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실험적 오류로 인해 리드가 실제보다 적게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전자의 물리적 양은 동일하더라도 서열 구성의 특성에 따라 리드 개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발현량을 산출할 때는 서열 구성비에 따른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측정된 리드 개수를 가감하는 보정 과정을 거친다.

결국 RNA 시퀀싱을 통한 유전자 발현 분석은 단순히 개수를 세는 행위를 넘어, 서열의 길이, 실험의 전체 규모, 매핑의 중복성, 서열 자체의 특성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보정 기술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생명체가 가진 복잡한 유전적 변이를 더욱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10.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의 장단점을 병렬하고 절충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기술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미래의 기술적 난제를 예측하고 있다.
- ③ 기존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신기술의 원리와 보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상반된 두 이론을 대조하여 각 이론이 차지하는 학문적 위상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다.
- ⑤ 유전자 분석 기술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하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マイ크로어레이의 신호 포화 현상은 이미 알려진 서열 정보를 활용하면 정밀한 수치 보정이 가능하다.
- ②RNA 시퀀싱의 매핑 과정은 시료 내 RNA를 파쇄하여 리드를 생성하기 이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 ③RPKM은 기계가 읽어낸 전체 리드 총량이 변동되더라도 유전자 고유의 길이에 따라 값이 결정됨을 전제로 한다.
- ④다중 매핑 리드를 특정 유전자에 임의로 할당하는 방식은 그 유전자의 실제 발현량보다 수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낳는다.
- ⑤GC 함량이 높은 유전자는 실험적 오류로 리드가 과다 생성되므로, 보정 시 측정된 개수를 차감해야 한다.

12.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준 유전체 지도에 리드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실을 최소화하여 정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 ② 리드라는 불연속적인 단위를 합산함으로써 서열 편향성에 따른 실험적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형광 신호 수치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측정값의 최대치 제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 ④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정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료 간의 전체 리드 총량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하기 때문이다.
- ⑤ 탐침과의 결합 여부를 정수(0 또는 1)로 판정하여, 서열 정보가 없는 신규 RNA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연구자가 동일 조직의 시료 A(전체 리드 1,000만 개)와 시료 B(전체 리드 2,000만 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단, RPKM은 유전자 길이와 전체 리드 수가 보정된 값이며, FTH1과 SP100는 매우 유사하다)

유전자	길이	GC비율	시료 A RPKM	시료 B RPKM
FOXP3	2.0	78%	0.1	0.1
FTH1	1.0	50%	100	100
SP100	1.0	50%	0	0

- ① 시료 B에서 측정된 FOXP3의 실제 리드 개수는 시료 A의 2배 일 것이다.
- ② 시료 A에서 FTH1과 FOXP3의 서열 편향성에 따른 리드 생성 효율의 차이가 RPKM 산출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시료 A와 B 모두에서 다중 매핑 리드들을 FTH1과 SP100에 균등하게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료 B에서 유전자의 길이가 길수록 생성되는 리드의 절대 인 개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RPKM 값의 역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⑤ 서열이 유사한 SP100의 리드가 모두 FTH1에 잘못 할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두 시료에서 동일한 비율로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적 합리주의가 세계를 물리적 좌표의 집합으로 상정할 때, 시공간은 모든 지점을 등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좌표화해서 측정 가능한 매끈한 평면 위에서 인간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는다. 그러나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가 결코 이러한 평면에 머물지 않음을 지적하며 평면의 세계에 질적 위계를 도입한다. 그에게 세계는 축복의 양태가 드러나는 성(聖)의 영역과, 의미가 갯빛으로 바래진 무채색의 속(俗)의 영역으로 철저히 나눠진 위상적 지도이다. 여기서 성스러움이란 일차원적인 종교적 범주가 아니라, 하구와 대립하며 스스로의 실존을 드러내는 본질적 실제 그 자체를 의미한다.

성스러움이 공간의 층위에서 세속적인 사물이나 장소를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엘리아데는 성현이라 명명한다. 성현은 균질했던 공간에 고정점을 찍음으로써 평면의 세계를 성스러운 비균질적 공간으로 ④변모시킨다. 종교적 인간은 성현이 나타난 지점을 세상의 다른 곳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때 확보된 중심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며 있는 세계의 축이 된다. 인간은 이 축을 통해 신성한 실제와 소통하며 비로소 실존의 가능성을

얻는다. 만약 이러한 중심이 부재한다면 공간은 다시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평면으로 가라앉게 되어, 종교적 인간에게 그것은 곧 존재론적 파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균질적 인식은 시간의 층위에서도 작용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시간은 일상적이며 가역적인 속된 시간과 의례를 통해 진입하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성스러운 시간은 선형적으로 흘러가 소멸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신화적 사건이 일어났던 태초의 시간인 일루드 템포스의 현존이다. 종교적 인간은 의례를 통해 신들의 창조적 행위를 모방하고 재현함으로써, 합리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마모되어 가는 시곗바늘로부터 이탈하여 시공간의 근원적 시점으로 회귀한다. 엘리아데는 이를 영원 회귀라 일컬었는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시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실제에 실시간으로 참여함으로써 존재의 생명력을 근원적으로 간신히 실존적 도약이다.

그렇기에 엘리아데가 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과 속은 배타적인 이분법에 머물지 않는다. 성현이라는 사건을 통해 속의 사물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성이라는 초월적 가치를 담지 할 매개체가 된다. 엘리아데는 현대의 비종교적 인간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세속화된 현대인이 고향에 대해 느끼는 원초적 향수나 특정한 장소 및 기념일에 부여하는 배타적 의미는,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성과 속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을 규명하는 필연적 경로임을 역설한다.

14. 위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적 합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관의 보편성을 종교적 층위에서 역설하고 있다.
- ② 상충하는 두 관점을 결충하여 현대인의 실존적 위기를 해결할 제3의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④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하며, 비종교적 속성이 어떻게 성스러움으로 변모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부정하는 종교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근대적 합리주의의 논리적 오류를 증명하고 있다.

15. 위 지문의 엘리아데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현은 시공간의 객관적 물성을 보존한 상태에서 초월적 실재의 현현을 매개함으로써 공간의 질적 변용을 야기하겠군.
- ② 종교적 인간에게 공간의 비균질성은 실제에 근거한 객관적 중심의 발견이겠군.
- ③ 속된 사물이 성스러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됨으로써 비종교적 세계 내에서도 성스러움은 포착될 수 있겠군.
- ④ 영원 회귀는 태초의 시간적 질서에 현재의 물리적 행위를 합치시킴으로서 시계적 시간의 비가역성을 탈피하겠군.

⑤ 종교적 인간이 지향하는 중심은 인간이 실존적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겠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엘리아데에 대한 뒤르켐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에밀 뒤르켐에게 종교적 성스러움이란 사물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집단적 의례를 통해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위의 실체적 투영이다. 특정 장소가 성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초월적 실재와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장소와 시간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사회적 규범을 각인시키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적 시공간의 비균질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욕구가 아닌,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자연적 산물이다.

- ① 성스러움은 집단적 의식이 대상에 투사한 허구적 가치일 뿐이다.
- ② 성현은 사회 체계의 유지를 위해 특정 시공간에 부여된 도구적 상징에 불과하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의 향수는 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적 유대감에 대한 사회적 결핍의 발로이다.
- ④ 시공간의 비균질성은 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된 사회적 장치이다.
- ⑤ 종교적 시공간의 위계는 사회 통합을 위해 시공간을 구조화 한 상징적 구조물이다.

17. 문맥상 밑줄친 ①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개조(改造)시킨다 | ② 개편(改編)시킨다 |
| ③ 완화(緩和)시킨다 | ④ 치환(置換)시킨다 |
| ⑤ 승화(昇華)시킨다 | |